

위안부 할머니 끝내 못풀고 간恨 달랜다



김은희 신도회장



6일 광주시청 앞 위안부 천도제 행사에서 진행될 영산재 모습.

광주 원효사 6일 광주시청 소녀상 앞서 '천도제-소녀, 나비가 되어'

지난 2월 딸의 권유로 영화 '귀향'을 본 김은희(68) 광주 원효사 신도회장은 너무 마음이 아왔다. 고(故) 공옥진(1931~2012) 여사 외동딸인 김 회장은 어린 소녀들이 당한 끔찍한 경험에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같이 영화를 본 주지 현지스님에게 먼저 하늘로 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옥진기념사업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씨는 '공옥진여사 추모음악제' 추진 예산 중 일부도 내놓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뜻을 전해들은 주지 현지스님은 흔쾌히 동의하고 행사를 추진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동무였을 수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죄인된 마음으로 천도제를 꼭 치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렸던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 배상금 10억엔(약 10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무성의한 사과와 함께 법

신도회장 김은희·시민단체 주도

진각 스님 등 넋 위로 영산재 진행

추모시 낭송·살풀이춤·무용 공연도

적 책임은 없다는 일본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맺힌 세월을 기다린 끝에 들은 결론이다.

원효사가 위안부 할머니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넋을 위한 천도제-소녀, 나비가 되어'다.

이번 행사는 원효사와 뜻을 함께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다. 현지스님이 각 본부장과 상임대표로 있는 (사)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와 원효사능엄신주기도회가 주최했고 BBS불교방송, 공옥진기념사업단, 공옥진박차와 임지형무용단, 우리춤

명선화무용단 등 예술단체 등이 후원했다.

행사는 크게 추모의식(천도제)과 예술공연으로 구성된다. 천도제에는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를 이수한 진각 스님 등이 참여해 바라춤을 추며 할머니들의 넋을 달랜다.

이어 임지형 무용단이 '눈물이여라'(가제) 공연을 선보이고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스님이 자신의 곡 '환생'을 부른다. 또 양봉모 시인이 추모시를 낭독하고 명선화우리춤무용단이 살풀이춤을 공연한다.

그밖에 김주희씨가 판소리를 들려주고 가수 신자유씨가 '정'을 부른다. 가수 주권기씨는 이번 행사에서 '귀향'을 보고 만든 위안부 주제 신곡을 선보인다. 마지막 '아리랑(꽃처럼 나비처럼)' 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꾸민다.

조혜영 공예가는 노란 나비를 형상화한 나무판넌트를 108개 제작해 나눠줄 예정이다.

현지 스님은 "현재 상황을 보면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라 해서 위안부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며 "문화로서 승화시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해마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인야시장 '별장' 4월 한달간 작은 영화제

'다이빙벨-확장판' 등 상영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대인예술야시장 '별장'이 4월에는 '간절한 바람'을 주제로 작은 영화제 '유별난 극장'을 운영한다.

2일에는 '잠들지 않은 남도, 제주를 기억한다!'를 주제로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레드헌터', '구름바-바람이 분다', '젼 다류 강정'을 상영한다.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망각과 기억', '바다에서 온 편지 2, 3' '다이빙

벨-확장판'이 상영된다.

9일·23일·30일에는 지역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요 상영작은 '중이 비행기', '삼포 가는 길', '그날'(이상 조재형 감독), '광주, 영화가 필요한 시간'(조대영 감독), '이상호의 눈'(최성운 감독), '오월을 걷는 여자'(김화순 감독), '당신', '2088 스페이스 오디세이'(이상 송민주 감독), '블립소리'(윤수만 감독), '오월을 찾다'(박성배 감독) 등이다. 문의 062-233-14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존재의 빛'... 정운학 작가 개인전

5월 2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빛'을 통해 공간과 사물의 의미를 표현하는 정운학 작가가 개인전 '존재의 빛'을 무등현대미술관에서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대표작품 '빛의 열매', '시간을 담다', '책이야기' 등 미디어 아트 설치작품 총 10여점을 출품한다.

정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담양 담빛예술창고 등에서 '빛의 열매'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나무에서 뻗은 선들 사이로 수많은 하얀빛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연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라색 빛을 발산하는 신작 '빛의 열매II'를 선보인다.

'시간을 담다'는 물이 담긴 투명한 원구에

조명을 통과시켜 전시장 바닥에 형이상학적 빛과 그림자는 투영시킨 작품이다. 실루엣처럼 중복된 상은 현재를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가 간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씨가 정교하는 제어하는 빛 기술은 다양한 해석을 낳게하며 존재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정씨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과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슈테델슐레를 졸업한 뒤 광주·독일에서 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해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루미나리아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시기간내 주말에는 가족단위 체험교육프로그램(선착순 접수)을 진행한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



'책 이야기'

극단 청춘 가족 코미디극 '해피 파파' 무대

1~15일 광주 예술극장 통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청춘이 유쾌한 가족 코미디극 '해피 파파'를 무대에 올린다. 1~15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일·월·화 공연 없음) 광주 예술극장 통.

주인공은 아내와 함께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 신조류. 이번 생일만큼은 혼자 보내기 싫지만 아내는 돈

만 보내라고 할 뿐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

신조류는 결국 '니맘 니맘' 역할 대행 회사에 아내와 딸 역할을 할 사람을 신청한다. 까칠하고 반항적인 딸 역할의 시내, 촌스러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역의 봉준마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과 부대끼며 신조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충무 작가의 희곡 작품으로 극단 대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다. 오설균, 고난영, 김은미, 박신아, 강현구, 현지우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전화 및 카페(cafe.daum.net/cctheater)예매 30%, 3인 가족 할인 50%. 문의 062-430-5257, 010-5199-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꿈다락 문화학교-꼬마 작곡가' 참가자 모집

'내가 만든 작품을 광주시향이 연주해준다고?'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문화학교-꼬마 작곡가, 광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개발한 '꼬마 작곡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고,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시향은 올해 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5회 과정이다. 초등학교 3~6학년(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1기'(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와 초등학교 3~6학년 포함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1기'(토요일 오후 2시~5시)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놀면서 박사 배우기, 그림으로 악보 그려보기, 작곡가로서 연주기와 대화하기 등이며 직접 작곡한 곡을 광주시향이 연주해준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문의 062-524-5085. /김미은기자 mekim@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건축, 문화광주의 아이콘 되다

광주의 상징적 건축물들
문화도시에 펼친 건축적 상상력, 광주폴리
광주 전남의 근대건축에 깃든 이야기

사람이 브랜드다

악양 들녘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불멸의 '토지'

경남 하동 & 소설가 박경리

남도 美味樂

식안

소금꽃 핀 염정길 따라 느린 걸음

문학 화제

그리운 시인들의 초판본

시집들 베스트셀러 주목

"세상에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예향 초대석

한국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

"음악은 나이 먹을수록 깊어지는 거죠"

남도의 장인들

정밀한 전통나침반 만드는

윤도장 김종대

예향이 만나는 이 사람

공감의 팀워크 만드는 KIA타이거즈 코치 이대진

모바일 게임 성공 일군 인터넷배고 대표 이갑형

노충훈의 꿈의 여행④

예술과 휴양 '앙'개'의 행복

이탈리아 마르케

이제는 문화시민이다-스페인 예술교육 현장들 찾아서②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보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

지은 전문가

한정민 씨에게 배우는

'프랑스자수'의 멋

리빙 앤 스타일

드론으로 본 세상

매화 꽃잎 바람에 날리고

스타 데이트

"태강의 후에는 재연기 인생 최고의 대박이예요"

제대 후 '군인 유시진'으로 인기 폭발 송중기